

남쪽답가라



[해제]

<남조답가라>는 <나부가(懶婦歌)>와 같은 두루마리에 세로로 필사되어 있다. 한 줄에는 16~17자의 한글로 기록되어, 총 100행 1,564자의 본사와 9행 142자의 부기(附記)로 구성되어 있다. 작자는 미상이고 화자는 여자로 되어 있어 내방가사의 형태를 갖추었다. 문투는 한문투를 바탕으로 한글투를 적절하게 섞었다. <남조답가라>는 “어와 남조드라 여조를 웃지마소 여조는 무식하여 보빅운기 업건이와”라고 시작하여 부녀자들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경계하는 <나부가>에 대해 남자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노래하고 있다. 남자들은 글을 배워 유식하다고 하지만 게으름이 끝이 없어, 과장에 들어 남의 글을 몰래 베끼고, 제사는 궤사(闕祀)하기 일쑤며, 음식타박하고 친정 재물 실어와도 친정 식구 홀대하여,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환생하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부기에는 다시 여자들에게 “후싱의 남조로 숨겨나서 그리든 부모동기와 원근친척 모다만능 흐뭇즐기고 이고되서 심중 흐조서라”라고 하여 남자로 태어나길 소망하고 있다.

[원문]

남조답가라

어와 남조드라 여조를 웃지마소
 여조는 무식하여 보빅운기 업건이와
 남조난 유식하여 그른일 이실손가
 칠팔세에 글을씩와 소연등과 흥온후의
 슈령방씩 흠이스기 부모가 바리던니
 능정하기 그지업고 계이리기 흥이업서
 읍집초당 뒤집초당 튀전이야 바독이야
 낙가면 탁쥬스형 드러오면 낮춤조기
 그렁저렁 지닌다가 무슨그을 흥단말고
 점씩일중 못허거던 진스급지 어이할고
 감시동당 빅다하면 남먼저 우적이고
 돈웃허라 도포허라 보선기소 횡전기소
 양식지여 흥조하여 동점을 짜라가니
 외늑버지 왓다할고 음식전 황아전을
 기웃기웃 단니다가 중중의 드러가니
 글제가 무어신고 써적만 쥬엇쫓고
 빈독을 쓸거니여 천노동남의 글을바다
 중중의 경전하니 글도스 중컨이와
 글시쫓니 기귀허다 아조의 어린싱각
 다희과거 어디갈고 되방지기 밧비호소
 슈복이 적게온다
 절은집의 호방소리 드러가니 속절업시 불너안조
 훗방훗방 흥난고야
 불괴럽슨 헛지물을 어디다가 여헛노고

바느리누 스오지 춤비시누 스오지
 인역흥이 질러커던 남의흥은 무슴일고
 붓쳐밧철 들지니면 숨겨우리 닛닷거던
 줄입피고 못입피누 닛손으로 허여입고
 악이선다 뉴세한들 톨박조반 스먹인가
 아히운다 핑겨허면 기럼업서 누어조소
 제초누랍 갈여니만 어누제스 쫘스허며
 종조보리 후버니여 어누밧철 묵허던고
 바리바리 시러운옷 부부입고 남미입고
 هنگ가지가 나문거설 시모임계 드릭옵니
 호인군조 슈연군조 이복을낭 고스허고
 감두업시 가단말가 신은어이 벗것난고
 혼조드러 군동제 어누디의 모왔던고
 민밤업시 비밤밤의 된밤업서 몰마랏소
 맛보고 빅부을가 뒤공밤이 실기업다
 빈고디에 불못치소 밧솟슬거 기쥬엇소
 놀드누 즐먹기야 남정밧기 쏘인난가
 서당뵈히 직궁뵈히 도토서리 청어서리
 높으문 그그남턱 공구니 밧술보니
 흥시럽다 뉘이거니 밧건이 팔비조과 졸조신다
 눈골본니 뒤공날가 음석공스 그만허고
 술싼일 어바이업 아히디의 곱든얼골
 시집와셔 그저쳐소 다습시기 쓰여먹고
 모진양반 안히되여 빅옥궂탄 희든얼골
 외솟갓치 누르럿소 여덜조 덩든눈섭
 석숨조로 스가지고 초당의 혼조잘씩
 것말업시 누가던가 안누가면 증을니고
 조고나면 흥을보니 이웃분여 마쥬안조
 시모공스 뉘허던고 조인종모 업난흥을
 야종야족 보왓다가 농쥬초 그러아라
 흥악기도 조바니고 친정기별 그리다가
 오힌만의 닛종만니 부모동심 싱각허고
 눈물쟁기 고이허가 시가형시 오작허고
 친정지물 달나헌궂 바리바리 실어와도
 준단말언 안이허고 스랑의 손임오면
 어나인스 엇보든고 친정손 온다허면
 정심요기 즐못하면 안심초누 걱정헛소
 안증치려 말치려누 공정이 이러커든

성하고 가장 병들세라 헌웃버셔 솔푸럿소
쥬갑탁 쥬갑시라 죽곡식 흘너거던
나도역시 심화나셔 어린조식 불승하여
털목훈춤 심직홀가 돌친셔답 스언버논
누말뎡고 그러흔고 창웃갑과 도포갑과 근제헉헉야
물늑동줄 곤치라면 가음업다 핑기헉고
그만거살 슬허헉여 일지촉만 별노헉니
반보타죽 문지썸초 썸이썸차 축날줄 아라슬가
흔성흔말 손고피여 헉헉씨다 이소리난
업든해도 절노난다 마른도미 진도미의
밤낫업시 그리다가 혼나잘만 누어시면
불상탄말 안이헉고 문뎡치고 도라셔셔
놉푼소리 더욱분타 벌녕벌녕 조즌추립
보션기워 달난말은 혼달육 중날말다
소금소리 더욱심타 덕중지 썸중지의
초당도벽 황홀 헉단말은 쇠썸 진쇠동의
안방시벽 휴악헉다
화문석의 초당조리 농난헉다
멍석뎡기 썸적썸기 안방조리 기괴헉다
가난길삼 조로헉여 절복유렵 헉여두고
굴근쌀 스라니여 썸썸진지 청염터이
절은거동 불작시면 헉든공이 바이업다
이역압히 저르크든 니어이 투긴헉리
말을연과 말을헉면 우숨썸거 말을헉고
이웃집의 놀노가면 밤중만의 들어오니
타알바신 오성기썸 돌과거 핑계헉고
식쥬인을 가려두고 은가락직 우가락지
모란뎡기 공단뎡기 무순정 그◆헉고
안가온줄 모라난고 뎡권식 뎡지우고
편편흔 낫가둑으로 드러오니
전양반의 거동보소 썸니난체 우숨체로
달늑난체 혼조보기 앳갑도다
빙연동거 헉조헉면 빙주키가 쉬울손가
설은진정 홀뎡압셔 뎡고말고 강호령으로 버럿소
빅앗싸 못빅왓다 안진부모 욱맥이고
문지기 품뎡마요 열의 혼말식 뎡다헉면
분푸리 할뎡업서 아히도 썸다리며
그럿소썸 썸들면서 밧히공을 보왓뎡고

부연이네 신명아도 죽어남조 되어이시
고치하기 원이로다
고이흔 가스흔느 먹겨신나 후우습
괴송송할썸 글시더옥 괴괴라 인물가 남스럽습
슬푸다 여조드라 이네말습 드러보소
우리가 여로 숨겨나서 풍운니날인 다시
곳곳마다 훗터저서 호련이 심각흔니
곳부고 슬픈마암 엇지 증양할고
어와 봉드라 후싱의 남조로 숨겨나서
그리든 부모동기와 원근친척 모다만느
흐뭇즐기고 이고되서 심중 후조서라

[현대역]

남조답가라

어와 남자들아 여자를 웃지 마소

여자는 무식하여 보배운거¹⁾ 없건이와

남자는 유식하여 그른 일 있을쏜가

칠팔세에 글을 배워 소년(少年) 등과(登科) 하온 후에

수령방백(守令方伯) 흘리시기 부모가 바래더니

능청하기 그지없고 게으르기 끝이 없어

앞집 초당 뒤집 초당 투전(投錢)이야 바둑이야

나가면 탁주(濁酒) 사냥 들어오면 낮잠자기

그런저런 지내다가 어떤 것을 한단말고

점백일장(白日場) 못하거든 진사(進士) 급제(及第) 어이 할까

감시(監試) 동당(東堂) 보다 하면 남 먼저 우적이고

돈웃하라 도포하라 버선 김소 행전(行纏) 김소

양식(糧食) 지어 행자(行者) 하여 동접(同接)²⁾을 따라가니

웬 아버지 왔다 할까 음식전 황아전³⁾을

기웃기웃 다니다가 장중(場中)⁴⁾에 들어가니

글제가 무엇인고 거적⁵⁾만 주워 뜯고

빈독을 굶어내어 천노(賤奴) 동남의 글을 받아

장중(場中)에 경전(競傳)하니 글도사 칭(稱)커니와

글씨 본이 기귀(奇句)하다 아이의 어린 생각

내한 과거 어디 갈까 뒷방지기 바빠 하소

수복(壽福)이 적게 온다

절은 집의 호방(戶房) 소리 들어가니 속절없이 불러앉아

훗방훗방 하는구나

불계러운 헛재물을 어디다가 여혔는가

바늘이나 사오지 참빛이나 사오지

이녁⁶⁾ 흉이 질렀거든 남의 흉은 무엇인고

부처(夫妻) 밑을 드러내면 섬기울 이 내달거든

잘 입히고 못 입히나 내손으로 하여 입고

아기 선다 유세한들 토막 자반 사 먹인가

아이 운다 핑계하면 기름 없어 누어짚소

제차(第次) 나람 갈렸지만 어느 제사(祭祀) 궤사(闕祀)하며

종자(種子) 보리 후벼내어 어느 밭을 묵혔던가

바리바리 실어온 옷 부부(夫婦) 입고 남매(男妹) 입고

한 가지가 남은 것을 시모(媿母)님께 드리옵네

호인군자(好人君子) 수연군자(粹然君子) 의복(衣服)일랑 고사(固辭)하고

감투7) 없이 간단 말가 신은 어이 벗어놓고
 혼자 들어 군동제 어느 뒤에 모였던가
 맨밥 없이 비빔밥에 된밥 없어 물 말았소
 맛보고 배부를까 대공밥이 실기 없다
 빈 곳에 불 붙였소 밥술 굶어 개 주었소
 놀더니 잘 먹기야 남정(男丁) 밖에 또 있는가
 서당 뒤에 재궁(齋宮) 뒤에 도토서리 청어서리
 높은 문 그그남택 공구니 밥술 보니
 흥스럽다 죽이거니 밥건이 팔비잡과 잘 자신다
 눈꼴 보니 대공날까 음식 공사(供事) 그만하고
 술 싹 일 아버지 앞 아이 뒤에 곱던 얼굴
 시집와서 그르쳤소 다슴씨께 뜨여 먹고
 모진 양반 아내 되어 백옥같은 희던 얼굴
 외꽃 같이 누르렀소 여덟자 덮던 눈썹
 석삼자로 사가지고 초당에 혼자 잘 때
 결말 없이 나가던가 안 나가면 증8)을 내고
 자고나면 흥을 보네 이웃 부녀(婦女) 마주 앉아
 시모(媿母) 공사(供事) 뉘 하던가 장인 장모(丈人丈母) 없는 흥을
 야종야족 보았다가 남조차 그리 알아
 흥악기도 잡아내고 친정(親庭) 기별(寄別) 그리다가
 오랜 만에 내종(內從) 만나 부모 동생 생각하고
 눈물 빼기 괴이하다 시가(媿家) 형세(形勢) 오죽하고
 친정 재물(財物) 달라한가 바리9)바리 실어와도
 준단 말은 아니 하고 사랑에 손님 오면
 어느 인사(人士) 엿보든고 친정 손 온다 하면
 점심 요기(療飢)10) 잘못하면 안심 차나 걱정했소
 안장(鞍裝) 치려 말 치려는 공정(工程)이 이럴거든
 성하고 가정(家長) 병들세라 헌옷 벗어 살풀었소
 주갑(周甲)11) 턱 주갑세라 잡곡식 흘렸거던
 나도 역시 심화(心火) 나서 어린 자식 불쌍하여
 털목12) 한 줌 끔찍할까 돌친 서답13) 사언(詐言)14) 버15)는
 뉘 말 듣고 그러하고 창옷16) 갑(匣)과 도포(道袍)17) 갑(匣)과 근제(謹製)하여
 물레 동줄18) 고치라면 가음19) 없다 핑계하고
 그만20) 것을 싫어하여 일 재촉만 별노(別怒)21)하네
 반보(半步)22) 타작(打作) 먼지조차 꼭이조차 축날 줄 알았을까
 한 섬 한 말 손 곱아서 험히 씨다 이 소리는
 없든 화도 절로난다 마른 도마 진 도마에
 밤낮없이 그랬다가 한 나절만 누었으면

불상탄 말 아니 하고 문 닫치고 돌아서서
높은 소리 더욱 분다 벌렁벌렁 자진 출입(出入)
버선 기워 달란 말은 한 달 육장(六場)23) 날마다
소금소리 더욱 심타24) 대장지25) 소장지에
초당(草堂) 도배(塗褙) 황홀(恍惚)하던 말은 쇠똥 진쇠똥의
안방 새 벽(壁) 흉악(凶惡)하다
화문석(花紋席)의 초당(草堂) 자리 녹난하다26)
멍석때기 거적때기 안방 자리 기괴하다
가난 길쌈 자주하여 절복(節服)27) 유렵(遊獵)28) 하여 두고
굵은 쌀 살아내어29) 조석(朝夕) 진지 청염(淸艷)터니
저런 거동(舉動) 볼작시면 하던 공의(公議) 바이30) 없다
이녁 앞이 저럴거든 내 어니 투기(妬忌)31)하리
마을 년32)과 말을 하면 웃음 섞어 말을 하고
이웃집에 놀러 가면 밤중 만33)에 돌아 오네
타알바신 오성 기생 돌과거 핑계하고
식주인(食主人)34)을 가려두고 은가락지 우가락지
모란댕기 공단(貢緞)35)댕기 무슨 정 그◆한고
아까운 줄 모르는가 집 권식(眷食)36) 뒷세우고
뻥뻥한 낮가죽으로 들어오니
저 양반 거동(舉動)보소 성내난 체 웃는 체로
달래는 체 혼자 보기 아깝도다
백년동거(百年同居) 하자하면 병 주기가 쉬울쏜가
설은 진정(眞情) 할 데 없어 되고말고 강호령(強號令)37)으로 버럭했소
배웠다 못 배웠다 앓은38) 부모 옥 먹이고
문지기 품 못 파요 열의 한 말씩 든다 하면
분풀이 할 데 없어 아이도 두드리며
그럴소 또 쪼들면서39) 몇 해 공을 보았던고
부연이네 신명아도 죽어 남자 되어 있어
고치40) 하기 원(願)이로다
괴이한 가사 하나 몇 것이나 하우습고
상상할 뿐 글씨 더욱 괴괴라 인물이 남스럽다
슬프다 여자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우리가 여자로 생겨나 풍운의 날은 다시
곳곳마다 흩어져서 홀연히 생각하니
기쁘고 슬픈 마음 어찌 칭양(稱揚)할고
어와 붕(朋)들아 후생에 남자로 생겨나서
그리던 부모 동기와 원근친척 모두 만나
흐뭇 즐기고 이곳에서 성장하자서라

[각주]

- 1) 보배운거 : 보고 배운 것.
- 2) 동접(同接) :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런 사람이나 관계.
- 3) 황아전(荒-塵) : 예전에, 끈목·담배쌈지·바늘·실 따위의 자질구레한 일용 잡화를 벌여 놓고 팔던 가게.
- 4) 장중(場中) : 과거시험장.
- 5) 거적 : 자리깔개.
- 6) 이벽 : 듣는 이를 조금 낮추어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 7) 감투 :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의 하나.
- 8) 증 : '성(노엽거나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의 방언.
- 9) 바리 :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 10) 요기(療飢) :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 11) 주갑(周甲) : 환갑(還甲).
- 12) 털목(-木) : 굵고 거칠게 짠 무명.
- 13) 서답 : 빨래의 평안도 방언.
- 14) 사언(詐言) : 거짓말(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 15) 벼 : '등속(나열한 사물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이르는 말)'의 옛말.
- 16) 창옷(擎-) : 소창옷(예전에, 중치막 밑에 입던 옷옷의 하나).
- 17) 도포(道袍) :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띠 쪽을 댄다.
- 18) 동줄 :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연결한 줄(보통 벗짚알·왕골·청얼치 등으로 만듦).
- 19) 가음 : 감(웃감).
- 20) 그만 : 상태, 모양, 성질 따위의 정도가 그러하다. [유의어] 어연간하다, 어지간하다, 웬만하다.
- 21) 별노(別怒) : 특별히 화를 내다.
- 22) 반보(反步) : 땅 넓이의 단위. 1반보는 1정보의 10분의 1, 곧 300평으로 991.74㎡에 해당한다.
- 23) 육장(六場) : 늘, 항상.
- 24) 심타 : 심하다.
- 25) 장지(障-) :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미달이와 비슷하나 운두가 높고 문지방이 낮다.
- 26) 녹난하다 : 나른하고 피로하다.
- 27) 절복(節服) : 시절에 따른 의복.
- 28) 유렵(遊獵) : 놀러 다니면서 하는 사냥. 또는 놀이로서 하는 사냥.
- 29) 살아내어 : 씻어내어.
- 30) 바이 : 아주, 전혀.
- 31) 투기(妬忌) : 질투.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異性)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 32) 년 :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33) 만 :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 34) 식주인 : 나그네를 재워 주고 밥을 파는 집의 주인.

- 35) 공단(貢緞) : 두껍고, 무늬는 없지만 윤기가 도는 비단.
- 36) 집 권식(簞食) : 집식구.
- 37) 강호령(強號令) : 아주 강하게 꾸짖는 호령.
- 38) 앉은 : 좌정(坐定)하신.
- 39) 쫓들면서 : 졸아들면서.
- 40) 고치 : ‘다시’의 평안 방언.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